▶▶ 매일 INDEX

5면
세계 한인 동포들,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

전주매일

2025년 6월 16일 월요일 (음 5월 21일) 제376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美 현지서 바이오 · 금융 전방위 투자외교 나선다

김관영 도지사 이끄는 전북자치도 대표단
UN · BNY멜론 · 메이요클리닉 등 방문
김 지사 "글로벌 협력 성과로 전환할 것"

전북특별자치도가 미국 현지에서 미래 전략산업과 관련한 전방위 외교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15일부터 21일까지 5박 7일간 미국 뉴욕, 뉴저지, 보스턴, 미네소타를 차례로 방문해 글로벌 투자유치와 바이오 산업 협력, 금융 네트워크 강화 등 다양한 국제협력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출장은 김관영 도지사가 직접 대표단을 이끌며, 도청 바이오방위산업과, 기업유치과, 금융사회적경제과 등 관련 부서가 함께 참여한다.

대표단은 우선 뉴욕에서 황준국 UN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세계 4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북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뉴욕 UN 본부 방문과 함께, 현지 국내 금융사 법인장들과의 간담도 이어진다.

특히 세계적인 자산운용사인 BNY멜론,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Fidelity Investment)와의 접촉을 통해 전북의 금융산업 육성 의지를 알리고, 국제 금융 네트워크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뉴저지에서는 주정부 산하 경제개발청(NJEDA)과 청정에너지?바이오헬스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계 연방의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문화관광, 청소년 교류, 디지털 콘텐츠 분야 협력 모델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뉴욕 호남향우회, 특파원, 재외공공기관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동포사회와의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보스턴에서는 피델리티 본사와의 회의를 통해 전북 내 사무소 설치 방안을 제안하고, 세계 최대 바이오 전시회인 '바이오 USA'에 참가해 도내 바이오 기업들과 함께 글로벌 기업 부스를 공동 방문하며 전북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알릴 계획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의 업무협약(MOU) 체결, 바이오혁신센터 투어, '코리아 나이트' 행사 등도 예정돼 있다.

이어 방문할 미네소타에서는 세계 최고 의료기관 중 하나로 꼽히는 메이요 클리닉을 찾아 의료서비스 혁신 사례를 둘러보고, 글로벌 의료진과의 간담회를 통해 바이오메디컬 분야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가능성도 타진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방문을 통해 글로벌 금융·의료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넓히는 동시에,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및 금융특화도시 조성 등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출장은 전북의 산업, 문화, 외교, 미래전략을 세계 무대에서 입증하고 실현 가능한 국제협력 모델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전북이 가진 잠재력을 세계와 연결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만들고, 글로벌 혁신파트너와의 협력을 실질적 성과로 전환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지난 13일 전주 예수병원에서 열린 전북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개소식에 김관영 도지사와 신충식 예수병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심리상담 통한 임신 · 출산 부담 완화

전북 권역 난임 · 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예수병원 내 개소
난임 시술 전문 의료기관과 협력… 의료 · 심리 통합 지원
임신 초기부터 양육 초기까지 심리적 부담 완화 집중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이 안심하고 임신과 출산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전주 예수병원 내에 '전북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개소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상담센터는 난임과 임신·출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 상담을 통해 맞춤형 정서지원을 제공하는 전북 권역 핵심 기관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산부인과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5명의 전문 인력이 1대1 맞춤 상담과 우울증 선별검사, 집단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을 운영해 임신부터 양육 초기까지 심리 회복을 돕는다.

특히 난임 시술 전문 의료기관인 예수병원과 협력해 의료지원과 심리상담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고위험 임산부를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임신과 출산 부담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자치도는 저출생 문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 △한방 난임 치료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임신 전 건강관리 등 난임 초기 단계부터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더불어 △고위험 임산부와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출산 취약지 임산부 이송 지원 등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출산 직후에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산후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회복을 돕고, 양육기에는 △첫만남 이용권 지급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다자녀 가정 육아용품 지원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 심리상담센터를 중심으로 시군 보건소와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전북형 출산지원 정책의 내실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대기업 · 중견기업과 협력 강화… 도, '중추기업 전담제' 시행

김관영 도지사, 기업 대표들에 서한문 전달
"기업 · 행정이 함께 위기 넘는 파트너십 구축"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중추기업 전담제'를 새롭게 도입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 13일 도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 도내 주요 중견기업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제도 취지와 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중추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중추기업 전담제'는 도와 산하 출연기관 간부 공무원이 도내 중견·대기업과 1:1로 매칭돼 월 1회 이상 정기 소통하는 밀착형 지원 제도다. 기존 '1기업-1공무원 전담제'를 중견·대기업까지 확대·보완해 신속한 현장 대응과 정책 반영이 가능해진 것이 특징이다.

김관영 지사는 이날 기업 대표들에게 직접 서한문을 전달하며 "전북의 중추기업이 흔들리면 지역경제 전반이 위협받는다"며 "기업과 행정이 함께 위기를 넘고 기회를 만드는 든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전담제를 통해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아우르는 입체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 지역 주력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고 산업 전반의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전북중견기업협의회 회장인 이정권 DH그룹 회장은 "이번 전담제가 기업과 정책 간 실시간 소통 창구로 작동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본 사 인 사

▲김 만 호
임 : 국장 대우
명 : 군산취재본부장

〈6월 16일자〉

전북자치도, 올 하반기 승진내정자 발표… 국장급 2명 등 총 88명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13일 올해 하반기 정기인사 승진내정자를 발표했다. 〈국·과·팀장급 명단 15면〉

이번 승진 내정자는 국장급 2명, 과장급 6명, 팀장급 21명, 6급 52명, 7급 5명, 8급 2명 등 총 88명이다.

국장급 승진 내정자 중 먼저 이정우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진안여고를 졸업하고,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전북대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그는 국제행사팀장, 홍보협력팀장, 보건의료과장 등을 역임했다.

조광희 기업유치과장은 성원고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청년정책팀장, 경제정책팀장, 주력산업과장 등을 지냈다.

국장급 승진과 관련, 도 관계자는 "관리자로서 지도력, 통솔력, 업무수행 능력,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용했다"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이정우

조광희